

국세통계를 통해 살펴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자 수 변화

- 국세통계를 통해 서비스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자 변화를 고찰함.
 -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취업자 중 11.5%(약 328만 명)가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8.1%(약 230만 명)에 달함.
 - 국세청은 매달 말일 기준 14개 업태별 사업자 수와 100대 생활업종별 사업자 수를 공개하고 있어 해당 자료를 통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존속연수별, 연령별 변화 및 세부업종별 사업자 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음.
- 사업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매업과 음식업이 사업자 수 규모가 가장 큰 업태임.
 - 전체 사업자(12월 말 기준)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 약 1,000만 명에 가까워졌으며, 전년 대비 약 28만 명 증가함(표 1 참조).
 - 사업자 전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태는 부동산 임대업(24.4%)임.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변화에 따라 2020년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큰 증가세를 보였음(그림 1 참조).
 - 전체 사업자 중 14.8%인 약 148만 명이 소매업 사업자이고 도매업 사업자는 70만 명 수준으로 소매업 사업자가 다수
 - 도매업 사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소매업 사업자는 2023년 초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 최근 들어 증가폭이 둔화(그림 1 참조)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음식업 사업자의 수(8.2%, 약 82만 명)가 숙박업 사업자 수(0.7%, 약 7만 명)에 비해 현저히 많음.
 - 2022년까지는 음식점업 사업자 수의 증가폭(약 1.6만 명)이 훨씬 더 컸지만, 2023년 들어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숙박업 사업자 수 증가폭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기타 업종 중 건설업(6.1%, 약 62만 명)이 사업자 수 규모가 크며, 일정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하는 상황임.

〈표 1〉 주요 업태별 사업자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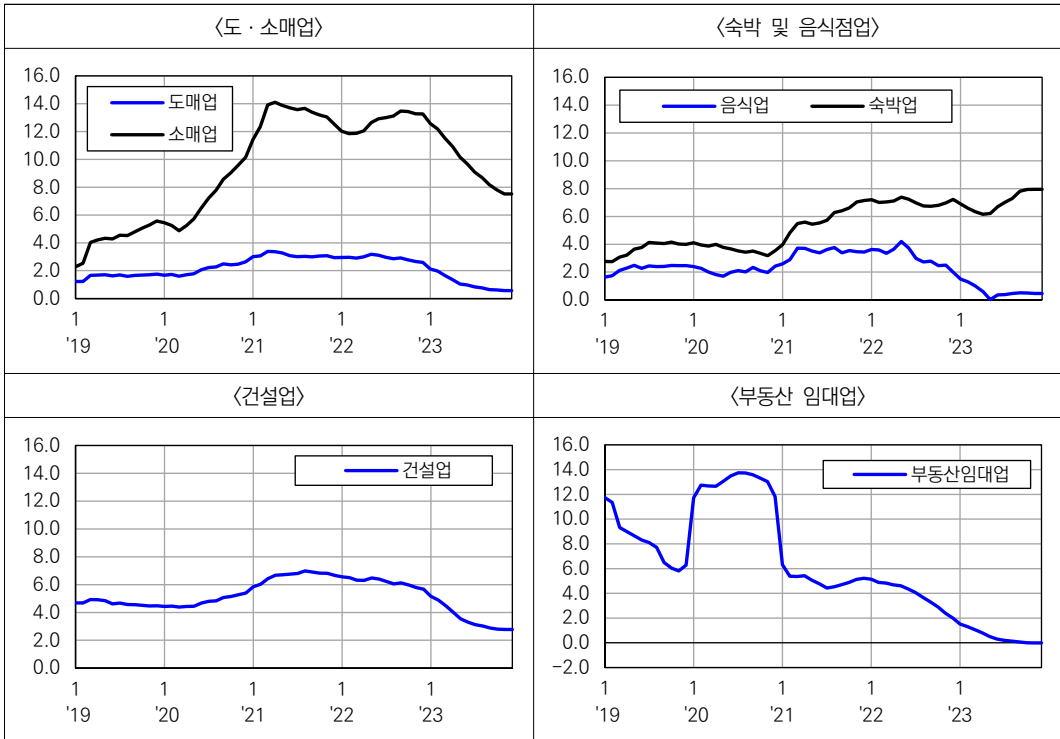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업종 전체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2019	8,105 (100.0)	643 (7.9)	984 (12.1)	741 (9.4)	50 (0.6)	503 (6.2)	1,913 (25.1)
2020	8,682 (100.0)	660 (7.6)	1,084 (12.5)	759 (9.0)	52 (0.6)	530 (6.1)	2,033 (26.2)
2021	9,234 (100.0)	680 (7.4)	1,220 (13.2)	778 (8.7)	54 (0.6)	566 (6.1)	2,273 (25.9)
2022	9,722 (100.0)	697 (7.2)	1,382 (14.2)	805 (8.4)	58 (0.6)	598 (6.2)	2,392 (25.1)
2023	9,999 (100.0)	702 (7.0)	1,478 (14.8)	824 (8.2)	67 (0.7)	615 (6.1)	2,439 (24.4)

주 : () 안은 업태별 사업자 수 비중을 뜻함.
 자료 : 국세청, 「14개 업태별 사업자 현황」, 각 연도.

〈그림 1〉 주요 업태별 사업자 수 증감률 현황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세청, 「월별 사업자 현황」, 각 연도.

- 소매업과 음식점업 사업자 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업태별로 존속연수에 따라 사업자 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소매업과 음식점업 두 업태 모두에서 비교적 업력이 짧은 존속연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다수였음(표 2 참조).
 - 업력별 분포가 두 산업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데 반해, 사업자 수 증감의 변화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소매업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신생 사업자(1년 미만)의 증가폭이 줄어들고, 1~3년, 3~5년에 해당하는 사업자 수가 크게 증가함(그림 2 참조).
 - 음식점업에서는 3~5년, 5~10년에 해당하는 사업자 수가 감소했고, 신생사업자나 업력이 10년 이상된 기존 사업자는 비슷한 규모로 증가함.
- 연령별로는 소매업 사업자가 다양한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음식점업 사업자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증가 중임.
 - 사업자 수는 소매업에서 3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연령별 사업자 분포를 보였으며, 음식점업의 경우 30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사업자 수가 적고 40대 이상이 다수였음.
 - 소매업에서는 30대, 40대 순으로 사업자 수 증가폭이 컸으며, 전 연령에 걸쳐 사업자 수 증가가 관찰됨(그림 3 참조).
 - 반면, 음식점업에서는 다른 연령대의 사업자 수 증가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 중이었고, 60세 이상 고령층 사업자 증가폭이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음.

〈표 2〉 소매업, 음식점업 존속연수별 사업자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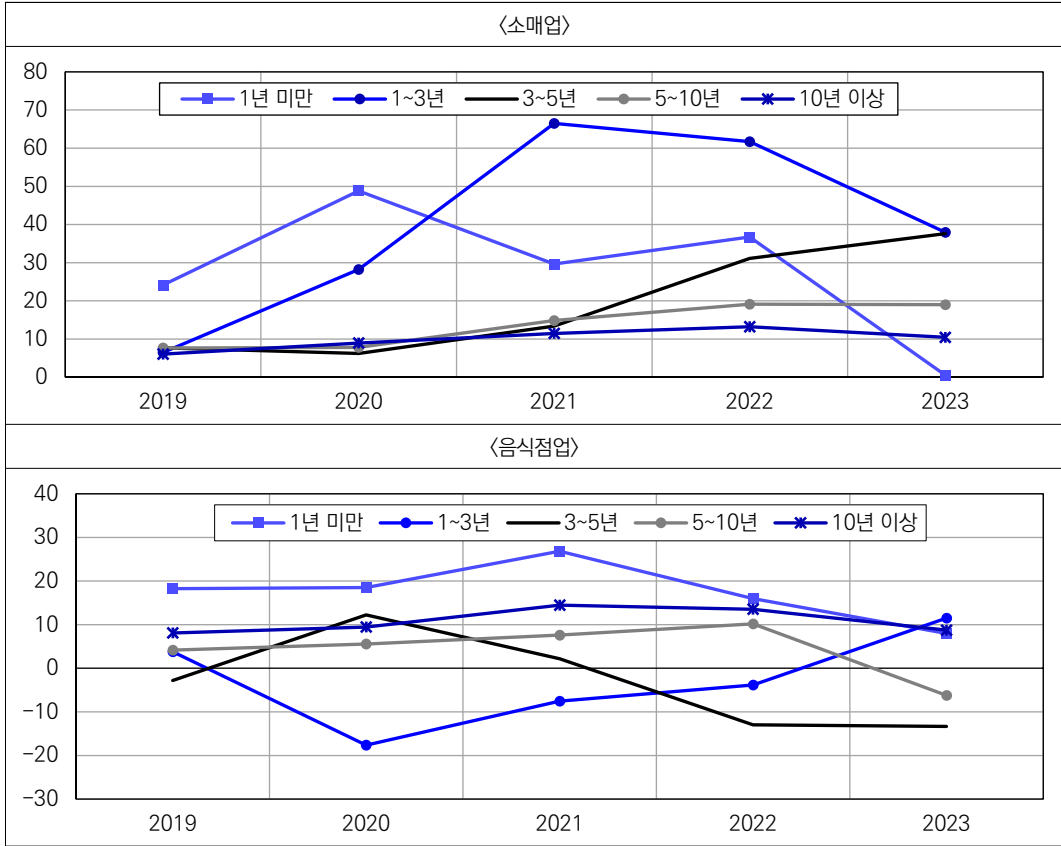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소매업					음식점업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2019	205 (20.8)	225 (22.9)	138 (14.0)	179 (18.2)	236 (24.0)	170 (22.3)	205 (26.9)	121 (16.0)	143 (18.8)	121 (15.9)
2020	254 (23.4)	254 (23.4)	144 (13.3)	187 (17.3)	245 (22.6)	152 (19.5)	217 (27.9)	127 (16.3)	152 (19.6)	130 (16.7)
2021	283 (23.2)	320 (26.2)	158 (12.9)	202 (16.6)	257 (21.0)	144 (18.0)	219 (27.2)	135 (16.7)	167 (20.7)	140 (17.4)
2022	320 (23.2)	382 (27.6)	189 (13.7)	221 (16.0)	270 (19.5)	141 (17.1)	206 (25.1)	145 (17.6)	180 (22.0)	149 (18.2)
2023	314 (21.1)	414 (27.8)	229 (15.4)	241 (16.2)	280 (18.9)	151 (18.3)	191 (23.2)	137 (16.6)	189 (22.9)	156 (19.0)

주 : () 안은 업태 내 존속연수별 사업자의 비중을 뜻함.
 자료 : 국세청, 「월별 사업자 현황」, 각 연도.

[그림 2] 소매업, 음식점업 존속연수별 사업자 수 증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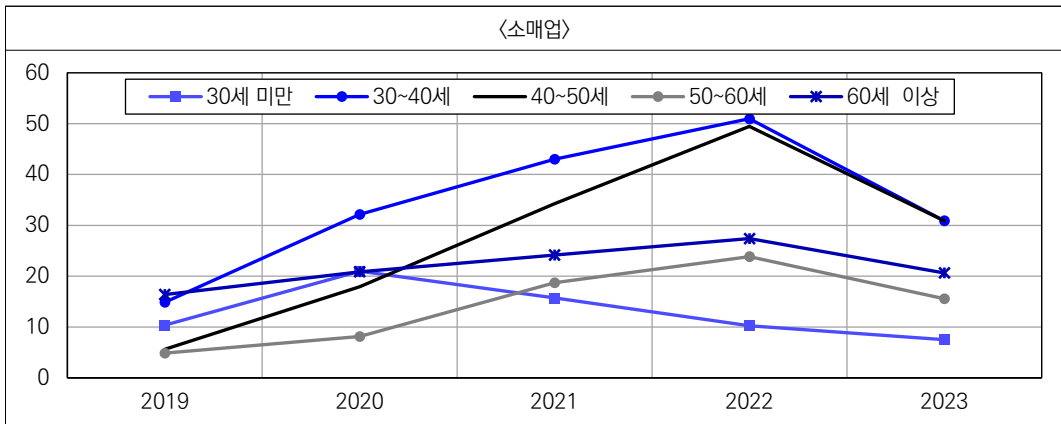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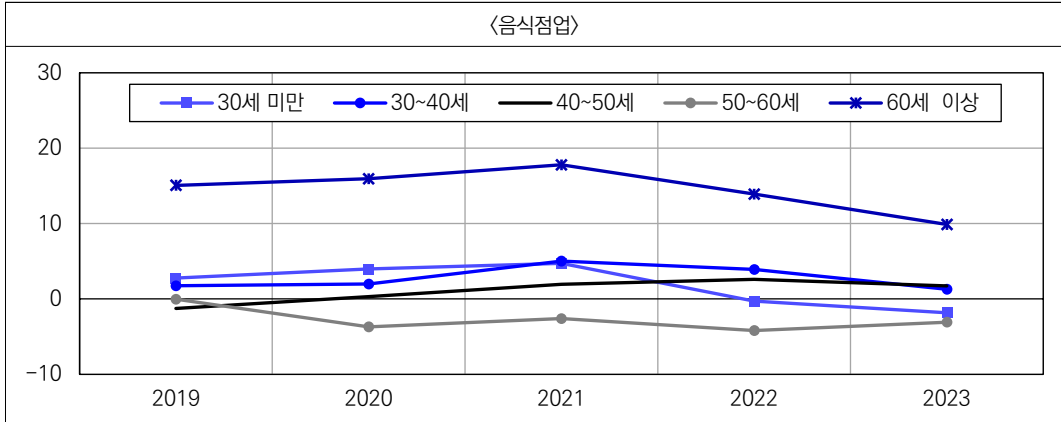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월별 사업자 현황」, 각 연도.

[그림 3] 소매업, 음식점업 연령별 사업자 수 증감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그림 3]의 계속



자료: 국세청, 「월별 사업자 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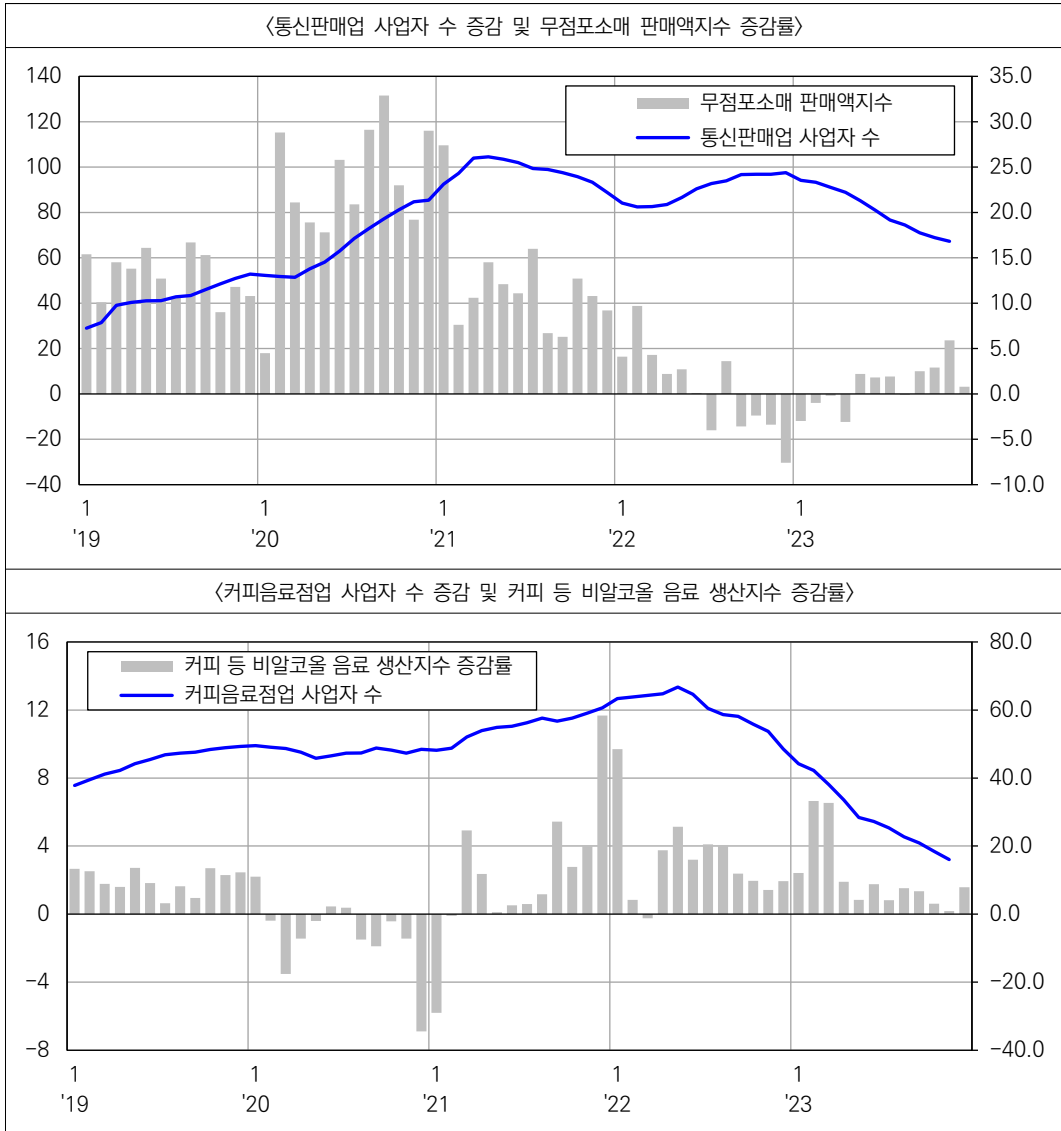
-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 변화 자료를 통해, 위에서 살펴본 소매업, 음식점업 사업자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종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음(그림 4 참조).
 - 소매업 사업자 증가의 상당수가 통신판매업에서의 증가였는데, 2023년 12월 소매업 사업자 증가 9.6만 명 중에 6.4만 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했음.
 - 이 업종과 유사한 분류를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매판매통계에서 살펴보면, 무점포소매의 판매액지수가 2022년 초까지 증가 추세였음을 알 수 있음.
 - 무점포소매 판매액지수가 회복하기 시작한 2022년 3분기 이후, 통신판매 사업자 수 증가 폭도 줄어들고 있음.
 - 음식점업 사업자 변동은 주로 커피음료점업에 의해 좌우됨. 커피음료점업 사업자가 2022년 2분기까지 1만 명 내외로 증가해 오다가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음.
 - 이 업종과 대응되는 서비스업 생산통계를 살펴보면, 커피 등 비알코올 음료 생산지수가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음.
- 요약하면, 전통 내수 서비스업 중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사업자 수 기준으로 다수였고, 변화폭도 컸음.
 - 소매업이 1~3년, 3~5년에 해당하는 비교적 존속연수가 짧은 사업자가 전 연령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음식점업은 신생 사업자이거나 업력이 매우 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60세 이상 고령층 위주로 증가 중
 - 세부업종별로 소매업은 판매액지수가 증가 중이던 통신판매업 위주로 사업자가 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음.
 - 음식점업 사업자의 변동은 주로 커피음료점업에서 기인했으며, 해당 업종의 생산은 꾸준

히 증가 중임.

- 국세통계를 통해 이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인 업종의 사업자 변화를 시의성 있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KLI**

[그림 4] 소매업, 음식점업 사업자 주요 세부 업종별 사업자 수 증감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세청, 「월별 사업자 현황」, 각 연도.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각 연도.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